여행·면세, 터널 끝 보이나… 해외여행 정상화 기대에 '들썩'

정부, '트래블 버블' 본격 추진
해외 항공권 예약 442% 폭증
여행사, 백신 여행상품 출시하고
면세점도 관련 이벤트 속속 선봬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행업계과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우수 지역 간에 안전막을 형성,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트래블 버블 대상 후보 국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몰렸던 여행업계과 면세업계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행사와 면세점들은 여행 상품 출시와 관련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다.

인터파크투어는 연초부터 양국 간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이용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상품 판매를 활발히 진행한데 이어, 9일 자사 홈페이지 내 '얼린여행' 상설관을 만들었다. 해외여행 상품 판매와 전세계 여행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백신여행 상품을 출시한 것.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얼리 바캉스_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

우선 얼린여행 카테고리는 크게 '얼린 항공권' '얼린 리조트/호텔' '얼린 패키지' '추천여행 픽(PICK)'으로 나눠 항공/숙박/패키지 등 모든 종류의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 및 추천해준다. 얼린여행 시리즈는 최초 구매가로 이용 가능한 가격 동결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간 이용 가능한 상품 위주로 구성했다. 일정 기간 내에 환불/취소/양도가 가능한 조건으로 고객들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게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유럽 백신여행 상품을 출시, '백신 맞고 떠나는 안전여행 가이드' 기획전도 진행한다. '스위스/동유럽 5국8일' '독일+체코 2국8일' '동유럽/발칸 5국10일' '서유럽4국 10일' 등의 상품을 최대 출발 7일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한 조건으로 판매한다.

하나투어는 이달부터 직원 400여명에 한해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중 모든 인력이 정상 출근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백신 접종자 증가와 트래블 버블 도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항공권 예약은 직전 일주일보다 442%나 급증했다. 트래블 버블이 본격화되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상품을 선판매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 여행 재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맞물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다음달 8일까지 무역센터점·동대문점·인천공항점과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 바캉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 이용 고객 대상으로 총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95만원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H선불카드'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착륙 비행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오는 30일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출국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를 수신한 무착륙 비행 예정인 고객에게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사용 가능한 'H선불카드' 2만5000원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제주항공·에어서울에서 무착륙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현대백화점면세점 오프라인 멤버십 등급을 '블랙'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온라인 멤버십 등급은 최고 등급인 'H.VVIP'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신라면세점은 면세점 고객들에게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화장품, 향수, 패션, 선글라스, 시계 품목의 총 142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진행하는 70% 할인 행사와 구매 금액별로 최대 76만 S리워즈 포인트 증정 행사, 무착륙 관광비행을 하며 신라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을 위한 항공사 제휴 프로모션이 있다.

면세점들은 트래블 버블 체결 가능성이 큰 국가에서 매출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괌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면세점이 있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태국 푸껫 공항에 지점을 두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구·경북간 권칠승, 현장서 中企와 소통

〈중기부 장관〉

대구선 향후 정책 성과·방향 등 공유
안동 식품기업·백년소공인 등 방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10일 이틀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광폭 행보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애로 청취에 나섰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안동에 있는 기능성 식품기업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 기업 명인 안동소주를 각각 방문했다.

권 장관은 전날에도 대구에 있는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와 달성군에 있는 뿌리산업기업 창보를 각각 찾았다. 저녁에는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남북경협아카데미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출범 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권 장관이 이튿날 들른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특구는 향정신성분(THC)이 0.3% 미만인 대마식물, 즉 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각종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권 장관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시가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경상북도 하대성 부지사, 안동시 박성수 부시장 그리고 특구내 사업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 중 한명인 유한건강생활 강종수 대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헴프 산업의 오랜 염원이었던 규제의 먹구름이 가시고 있다"며 "헴프를 바이오 신소재로 개발해 신시장을 개척할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전국 최대의

권칠승 장관이 지난 9일 방문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헴프 주산지인 안동을 특구 지역으로 해 그동안 국내에선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한 실증을 4월부터 착수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고 있다.

헴프의 안전관리를 위해 헴프의 재배부터 칸나비디올(CBD, cannavidiol)의 추출→제조→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재배방식은 도난 등에 취약한 노지재배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 방식을 도입해 헴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해 칸나비디올 함량을 높이는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권 장관은 "아직까지 헴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높은 만큼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중기부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날엔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를 찾기도 했다.

이 곳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 신소재를 활용해 첨단의료기기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당시 특구로 지정됐다.

특히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등 2년간의 실증과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대구 특구의 재택 임상시험 실증에 적용된 원격모니터링처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증사업은 조속한 규제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 규제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특구는 또 그동안 버려졌던 인체 폐지방에서 콜라겐이라는 비싼 의료신소재를 추출하고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상처 치료용 피복재'와 같은 의료기기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우수 中企 20개사, 중국 진출길 '활짝'

중기중앙회, 中 'CTIS 2021'에
한국관 꾸려 20개사 참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 추가 진출을 돕기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SNIEC)에서 열리고 있는 'Consumer Technology & Innovation Show, CTIS 2021'에 중소기업 20개사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관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제품 경쟁력, 수출역량 등의 평가를 통해 엄선했다. 이미 다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중국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시장성을 인정받은 ▲에브리봇(물걸레 로봇청소기) ▲센텍코리아(음주·케톤 측정기) ▲월딘(스마트 요리기기) ▲제이컴정보통신(보호필름) 등 20개사다.

텐센트, 샤오미, HTC 등 중화권 대기업들을 비롯해 8개국에서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했고, 방문객은 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여건에서도 전시회 직접 참여 효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여기업을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나서

도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도로공사와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진공은 도로공사와 10일 경기 성남 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도로공사는 경북 김천에 총면적 1만1250㎡ 규모로 스마트 물류센터 및 물류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총 1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형 물류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참여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돼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사업 참여기업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와 연계해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사 및 물류기술 테스트베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한국형 스마트 물류기술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공동 사업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물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마케팅, 인력양성 등 이어달리기식 지원을 강화해 지역산업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